



# Global Goings-on

## 개발도상국

### 고혈압 문제

(Blood Pressure Is Most Lethal in Poor and Middle-Income Countries)

1. 심장질환이 선진국의 질병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은 선진국보다 후진국 및 중진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2. 최근 「The Lancet」에 실린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의 80퍼센트가 후진국과 중진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 심장마비 등 고혈압으로 인한 질병으로 조기 사망한 사람의 수가 전세계적으로 8백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45세에서 70세까지의 연령층이며, 고혈압 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경우였음.

4. 고혈압 수치가 높지 않은 경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쉽게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지난 50년간 의약품 및 다른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고혈압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크게 줄었음.

5. 고혈압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보건 문제이지만, 주요 제약회사 중 어떤 곳도 이에 대한 국제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음.

*The New York Times* 2008년 5월 6일

(<http://www.nytimes.com/2008/05/06/health/research/06glob.html?ref=health%26pagewanted=print>)

## 미 국

### 교육과 평균수명

(The Gap Gets Bigger: Changes In Mortality And Life Expectancy, By Education, 1981-2000)

영국

1. 1980년대와 90년대는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한 시기였음. 그러나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 평균수명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음.

- 교육수준이 낮은 흑인과 비히스패닉계 백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의 경우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였음. 교육 수준에 따른 평균수명 격차는 이 기간 동안 약 30퍼센트 증가하였음.

2.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수명 격차는 인종에 상관없이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음.

- 흑인이나 비히스패닉계 백인 모두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이 그렇지 못한 여성보다 평균 5년 이상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이러한 교육수준과 평균수명 격차의 관계는 수십 년간 존재하던 현상이지만, 이 보고서가 조사기간으로 정한 80년대와 90년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대상 정부차원의 지원이 증가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것임.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 차이가 커진 주요 원인 중 하나는 65세 이

상 고령인구집단의 교육격차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4. 보고서는 평균수명 격차를 가져온 건강위해 요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 흡연과 비만을 들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과 비만율이 높다고 밝혔음.

Health Affairs 2008년 3월/4월  
(<http://content.healthaffairs.org/cgi/reprint/27/2/350>)

중산층의 불안감 확대  
(The End of Entitlement)

1.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 중산층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인의 절반이상이 지난 5년간 자신이 정체가었거나(25퍼센트), 뒤쳐졌다고(31퍼센트) 보고하였음.

2. Newsweek의 Robert Samuelson은 한편으로 이것이 요즘과 같은 물질적 풍요사회에서 중산층이 모든 것을 향유하기에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 국민의 80% 가량이 중산층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로 1986년에는 이 비율이 약 67%이었음.

3. 하지만 Robert Samuelson에 의하면 중산층의 불안감이 커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하면 사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에 대한 확신을 잃었기 때문임.

- 중산층은 예측가능하고 안정된 생활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데, 연금, 건강보험, 장애보험 등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장치는 예전만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실직이나 이혼 등 삶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들을 겪을 확률은 70년대나 80년대 초에 비해 약간 감소했지만, 그러한 변화에 의해 타격을 받는 정도는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 예로, 실직으로 소득의 절반이 줄어든 가정은 17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음.

Newsweek 2008년 5월 17일  
(<http://www.newsweek.com/id/137546/page/1>)

조산아 사망률  
(Early baby survival 'unchanged')

1. 영국의 한 저널에 실린 연구결과에 의하면 임신 23주나 그 이전에 태어난 영아의 사망률은 지난 10년간 변화가 없었음. 그러나 임신 24~25주에 태어난 영아의 경우 생존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최근 「British Medical Journal」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0~2005년 기간과 1994~1999년 기간 영국 Trent 지역에서 임신 22~26주에 태어난 영아를 비교했을 때 24주에 태어난 영아의 생존율은 24%에서 41%로 증가하였고, 25주에 태어난 영아의 생존율은 52%에서 63%로 증가하였음.

3. 하지만 임신 23주에 태어난 영아의 생존율은 20%미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기간 Trent 지역에서 임신 22주째에 태어난 150명의 영아 중 어느 한명도 생존하지 못했음.

4. 한편 22~23주에 태어난 영아가 분만실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1994~1999년의 58%에서 2000~2005년 63%로 오히려 증가하였음.

5. 이렇게 임신 24~25주에 태어난 영아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그 이전에 태어난 영아의 생존율에 진전이 없는 것은 지난 4월 발표된 EPICure 2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음.

BBC News 2008년 5월 8일

(<http://news.bbc.co.uk/2/hi/health/7390522.stm>)

**공적-민간 영역간 병가일수 격차  
(Public-private gap on sick leave is wider than ever)**

1. 영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근로자 사이의 병가휴가일수 격차가 유례없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음.
2. 영국기업 협회와 보험사 Axa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 근로자의 2007년 평균 병가일수는 6.7일이었음. 이는 2006년의 평균 7일에서 다소 감소한 것임.
3. 하지만 공적부문 근로자의 평균 병가일수는 9일로 민간부문의 5.8일과 큰 차이를 보였음. 민간부문의 경우 2006년에 비해 병가일수가 줄어들었지만, 공적부문의 경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4. 2007년 총 병가일수는 17,200만 일이었으

며, 이는 1억 2천만 (영국) 파운드에 해당하는 경제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5. 공적영역 산업부문별로 보면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영역 근로자의 병가일수가 12.6일로 가장 길었으며, 병가일수는 지역별로도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음.

The Guardian 2008년 5월 14일

(<http://www.guardian.co.uk/money/2008/may/14/workandcareers.pay>)

**일본**

**비만 문제  
(Japan's Bulging Waistlines Trigger Flab Tests in Land of Sumo)**

1. 일본의 남성과 여성은 체중이 30년 전에 비해서 각각 10퍼센트와 6.4퍼센트씩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비만 증가의 주요 요인은 운동량 감소, 서양식의 확대, 인구 고령화 등을 들 수 있음.
2. 이에 일본 정부는 4월부터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기업들은 비만인 노동자수를 2012년까지 10퍼센트, 2015년까지 25퍼센트 감축해야 함.

- 대사증후군은 비만과 연관된 것으로 심장병 및 당뇨 위험을 높이는 건강상태를 말함.
- 노동후생성은 40세 이상 남성의 절반이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3. 일본 정부의 이러한 비만정책은 급증하고 있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도 관계가 깊음. 노동후생성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의료비 지출은 이전 10년간 23퍼센트 증가했고 2020년에는 GDP의 11.5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Bloomberg News 2008년 3월 12일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109&sid=aTcgvBD7ty.0#>)

**프랑스**

**적극적 가족정책  
(Baby about-face)**

1.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출

산율을 기록하고 있음. 1993년에서 2007년 사이 여성 1인당 자녀수가 1.66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하였음.

- 이민자 증가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프랑스 인구는 현재의 6,070만 명에서 2050년에는 7,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2. 일부에서는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대가족을 형성하는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함. 하지만 최근 한 인구조사는 이민자를 제외하고도 프랑스의 출산율이 1.9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음.

3. 이렇게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정부의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의 결과임. 한 예로 carte famille nombreuse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후 생긴 일종의 할인카드로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되며 철도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 Carte famille nombreuse 이외에도 다자녀 가정은 탁아소나 보육원 이용 및 가족수당 수급시 혜택이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음.

The Economist 2008년 4월 17일

([http://www.economist.com/world/europe/displaystory.cfm?story\\_id=11067647](http://www.economist.com/world/europe/displaystory.cfm?story_id=11067647)) **GSST**